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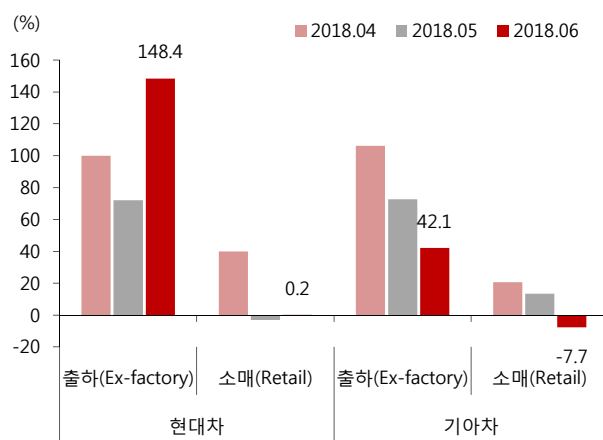
Issue Comment

- ✓ 낮은 기저효과에도 불구하고, 6월 출하 대비 부진한 소매판매로 중국에 대한 우려가 부각되며 완성차/부품사 주가 하락 진행
- ✓ 기저효과에 힘입은 막연한 회복 기대감은 낮출 필요
- ✓ 반등에 대한 기대감 존재, 하지만 이전에 현재도 진행중인 완성차 추정치 하향이 멈추는 것이 선결과제

[자동차] 낮은 기저효과에 힘입은 막연한 기대감은 낮출 필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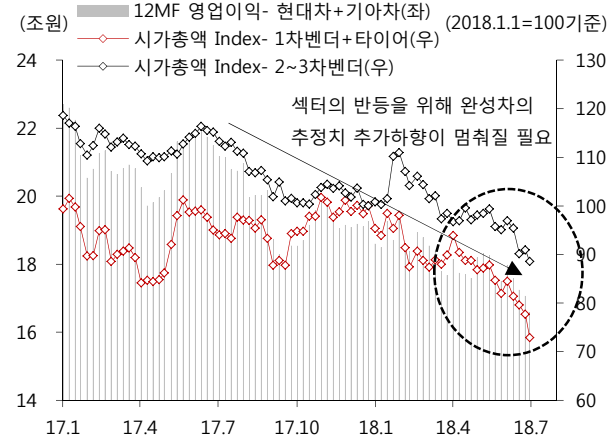
- 전일 자동차섹터 주가는 큰 폭으로 하락. 미중 무역전쟁과 미국 관세부과에 대한 우려도 영향을 주었지만, 부품사의 하락이 더 컸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대/기아 6월 중국 출하/소매판매의 영향이 컸다는 판단
- 전년 동기 대비 6월 중국 출하는 현대차 148.4%, 기아차 42.1%로 증가했으나 소매판매는 각각 +0.2%, -7.7%로 부진. 출하 대비 낮은 소매판매는 판매부진과 함께 재고증가에 대한 우려로 이어졌음. 수입차에 대한 관세 인하 기대감으로 대기수요가 발생하며 부진했다는 의견도 있으나, 현지화 비중이 높은 현대차그룹이 받는 수혜는 제한적이라는 점 중요
- 결국 낮은 기저효과에도 불구하고, 6월 출하량 데이터는 경쟁심화와 수익성에 대한 우려를 야기. 지속여부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하나 단기적으로 중국에서의 매출과 이익비중이 높은 부품사에 부정적. 한편 낮은 기저효과에 힘입은 막연한 회복 기대감 낮출 필요
- 한편 현대차그룹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부품 및 타이어 업체도 실적추정치의 변경이 없거나 제한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동반 하락. 완성차 실적추정치 하향에 따른 단기인하(CR: Cost Reduction) 우려가 주가에 반영되었기 때문. 아래 그림에서처럼 완성차의 추정치가 하향되는 경우, 벤더의 주가는 단기인하 우려를 반영하여 하락
- 단기적으로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존재할 수 있겠지만, 현재도 진행중인 완성차 실적 추정치 하향이 멈추고 난 이후에야 가능할 것. 7월 말 주요 업체들 실적발표 진행, 단기실적 뿐만 아니라 향후 완성차 업체의 업황과 수익성 전망에 주목할 필요

전년 동기 대비 중국 출하/소매 증감 - 출하 증가 vs 소매 부진



자료: 현대차, 기아차, SK 증권

완성차 추정치 부품사 주가 - 하향이 멈춘 이후에야 반등 기대



자료: Quantwise, SK 증권

- 작성자는 본 조사분석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신의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- 본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당사 조사분석담당자는 본인의 담당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본 보고서는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.
- 투자판단 3 단계 (6개월 기준) 15%이상 → 매수 / -15%~15% → 중립 / -15%미만 → 매도